Requiem for Strings

- □□

정보

개요
곡명: Requiem for Strings
작곡가: Tōru Takemitsu (1930–1996)
작곡 시기: 1957년
초연: 1957년 6월 20일, 도쿄, Tokyo Philharmonic, Masashi Ueda 지휘
장르: 분할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악장 작품

Wikipedia: Requiem for strings (Takemitsu)

Tōru Takemitsu의 Requiem for Strings 는 1957년에 완성한 단악장 현악 오케스트라 작품이다. 제 1·제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각각 두 성부로 나뉘고 더블베이스가 한 성부를 맡는 아홉 부분의 편성이 작품
전체를 이끈다. 이 글은 1957년 초연에 연결된 현악판을 대상으로, Lent 에서 Modéré 로 움직인 뒤 다시 느린 흐름으로 돌아오는 한 악장 안의 진행과 하야사카 후미오를 둘러싼 초기 수용을 함께 다룬다.

출판 정보

IRCAM은 이 작품의 출판사를 Salabert(EAS 17453)로 기록하고 Tokyo Philharmonic의 위촉작으로 분류한다. Schott Music의 연대기와 일본 공연기관 자료도 1957년 6월 20일 도쿄 초연을 확인하지만 , 지휘자 이름은 기관에 따라 Masashi Ueda와 Hitoshi Ueda로 다르게 적힌다. 초연 단체와 편성의 핵심은 일치하므로
, 본문에서는 IRCAM과 Boston Symphony Orchestra가 함께 사용하는 Masashi Ueda 표기를 따른다.

소요 시간

전곡은 자료에 따라 약 8–10분이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약 8분, IRCAM과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10분으로 제시한다. 한 악장 안의 세부 구간은 이 총시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고정된 악장별 분량으로 나누어 제시할 자료는 없다.

편성

현악기만 사용한다.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각각 두 부분으로 나뉘고 더블베이스가 하나의 부분을 맡아 총 아홉 성부를 이룬다. 이 숫자는 아홉 명의 연주자를 뜻하지 않는다. IRCAM이 제시하는 한 연주 편성의 인원 요약은 제 1바이올린 10명, 제 2바이올린 9명, 비올라 8명, 첼로 7명, 더블베이스 6명이며, 이는 성부 분할과 구별되는 실제 인원 자료다.

단악장 안의 세 구간과 귀환

1. Lent 의 시작

약음기를 낀 현악이 낮은 밀도로 출발하고, 비올라의 높은 선율과 바이올린의 동기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이 부분에서 아홉 성부가 개별적인 독주군으로 분리되기보다 하나의 호모포닉한 몸체를 이루며, 짧은 비올라 독주가 첫 구간을 닫는다고 설명한다. 느린 빠르기와 약음기의 제한된 울림이 하야사카를 추모하는 제목의 출발점을 만든다.

2. Modéré 의 중앙부

중앙부에서는 약음기가 벗겨지며 현악의 음량과 음역이 넓어진다.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리듬 동기, 투티 피치카토, 서정적인 삽입 구절이 차례로 나타나면서 한 악장 안의 긴장이 높아진다. LA Phil은 이 부분을
작품의 여러 구간 가운데 가장 활발한 중심으로 설명하고, BSO는 두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하모닉스가 상승을 날카롭게 끊는 대목을 언급한다. 이 설명은 중앙부를 단순한 중간 쉼표가 아니라 시작과 종결 사이의 밀도 변화로 파악하게 한다.

3. Lent 의 귀환

마지막 구간은 시작의 재료를 축약해 되돌리면서도 중앙부의 격동을 거친 뒤의 다른 무게를 지닌다. 높은 화음과 피아니시모 현악이 교차하고, 마지막에는 바이올린의 느린 독백이 남는다. LA Phil이 제시하는 A–B–C–A에 가까운 대칭과 BSO가 제시하는 Lent, Modéré, Lent 라는 큰 구분은 이 귀환을 서로 다른
해상도로 설명한다. 두 관점 모두 마지막이 처음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중앙부를 통과한 뒤의 종결임을 보여 준다.

아홉 성부의 음향 조직

Takemitsu는 이 작품에서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나누어 놓았지만, 각 부분을 협주곡의 독주자처럼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 BSO가 요약한 “소리의 강 ”이라는 이미지는 여러 성부가 한 흐름 안에서 결을 바꾸는 방식을 가리킨다. 약음기와 무약음기의 교대, 좁은 음역에서 넓은 음역으로의 이동, 피치카토와 하모닉스의
대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현악 질감을 만든다. 따라서 인원 수와 성부 수를 따로 기록해야 작품의 실제 균형과 음향 조건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추모의 배경과 초기 수용

Requiem for Strings 는 영화음악 작곡가 Fumio Hayasaka의 죽음과 연결된 추모 작품으로 소개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작곡 당시 Takemitsu가 심하게 앓고 있었고 후대에 이 곡을 자신의 장례식과도 연결해 회고했다는 맥락을 전한다. Hayasaka에 대한 애도와 작곡가 자신의 죽음 의식은 겹치는 배경이지만 , 어느 한쪽만으로 작품의 내용을 고정하지 않는다.

1959년 일본을 방문한 Igor Stravinsky가 작품의 녹음을 우연히 듣고 끝까지 청취한 뒤 강하게 호평했다는 일화는 Schott, LA Phil, BSO, Tokyo Philharmonic 자료에 공통으로 기록된다. 이 사건은 Takemitsu의

이름이 해외 음악계에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 작품의 언어가 그 한 번의 청취로 생겨났다는 뜻은 아니다. 1950년대의 독학, Jikken Kōbō 활동, 서양음악과 영화음악 경험이 이미 이 현악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

주요 자료

Requiem for strings, IRCAM 작품 데이터베이스
Tōru Takemitsu 연대기와 작품 정보, Schott Music
Takemitsu: Requiem for strings, Boston Symphony Orchestra
Requiem, Tōru Takemitsu, Los Angeles Philharmonic
Tokyo Philharmonic 프로그램 노트
BIS 음반 해설